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 활동 성장 둔화세...수요 전망 위축
- Bloomberg: 전문가들, 경기 침체 확률 50% 아래로
- WSJ: 연준이 인플레이 승리 발표 준비하기가 힘든 이유는?
- WSJ: 미 주요 연령층, 구직 시장으로 몰려
- Bloomberg: 주택 시장 반등, 연준 인플레이 개선 노력에 도전
- WSJ Real Time Economics: 미국 전력망, 무더위 수요 견딘다 - 직장인들 휴식시간 무얼할까

[미국 금융]

- Bloomberg: 자산 운용사들의 달러 약세 베팅, 최고치

[반도체]

- Bloomberg: 미 칩 CEO들 “정부는 중국 수출 통제 여파 검토해야”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업체들, 팁 요청 계속하는 이유
- WSJ: Elon Musk의 AI 스타트업이 Tesla 에 주는 의미
- CNN Business: Spotify 가격 인상하다
- CNN Business: AMC “좌석 차등 요금 부과 취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Business Activity Growth Slows While Demand Outlook Dims

미 기업 활동 성장 둔화세

- 7월 초 미국 기업 활동은 서비스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 오늘 월요일 발표된 S&P 글로벌 미국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7월에 1.2 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다. 50 이상이면 성장세를 나타낸다. 서비스 제 공업체에 대한 낙관론이 약해지면서 미래 활동 지표 또한 하락하여 올해 들어 가장 약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어두운 그림이 앞으로 몇개월 동안 생산량 성장에 하방 리스트를 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Economists See US Recession Odds at 50% or Less in New Survey

전문가들, 경기 침체 확률 50% 아래로

- 전미비즈니스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은 50% 이하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 월요일 발표된 경우에서 이코노미스트 응답자 71%가 이같이 답했다.
- 이는 지난 4월 똑같은 설문조사에서 침체 예상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가 각각 50%로 나뉜 상황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 7월 설문조사에서는 답변자 4명 중 1명 이상이 내년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25% 이하로 바라보았다.

Bloomberg 기사

WSJ: Why the Fed Isn't Ready to Declare Victory on Inflation 연준이 인플레이 승리 발표 준비하기가 힘든 이유는?

- 요지: 연준 관리들은 경기 침체없이 과연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둔화될 수 있을 지 여전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 연준이 이번주 금리 0.25%를 올린 후에도 올 여름 후반 인플레이 경로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연준의 다음 조치를 예상하기 힘들다.
- 일부 연준 관리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 개선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어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하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하버드대 경제학자 Karen Dynan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처럼 보인다 해도 이는 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WSJ 기사

WSJ: Americans in Their Prime Are Flooding Into the Job Market 미 주요 연령층, 구직 시장으로 몰려

- 올해들어 한창 일할 연령인 25세부터 54세까지의 취업자 또는 구직자 비율은 2002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 이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즉, 고용시장의 열기를 다소 시키고 있는데다 임금 상승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개선시키려는 연준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
- 당초 팬데믹 초기에는 4백만명의 주요 연령대가 일을 그만두면서 1983년 이래 가장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였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연령대 근로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2백20만명을 거의 넘어섰다.

WSJ 기사

Bloomberg: Housing-Market Rebound Poses Challenge for Fed's Inflation Fight**주택 시장 반등, 연준 인플레이션 개선 노력에 도전**

- 주택 시장 반등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작년에 잠깐 하락 하던 주택 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복잡하게 하는 데다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인상해야 할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연준의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의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을 앞서고 있다.
-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여파를 준다면 연준이 결국 금리를 더 올리거나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연준과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미국 전력망, 무더위 수요 견딘다 - 직장인들 휴식 시간 무얼할까**[미국 전력망, 무더위 수요 견딘다]**

-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미국 일부 지역의 전력 수요가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때문에 전력망이 이같은 수요를 견디고 있다.
- 예를 들어 텍사스에 일부 석탄 화력과 가스 화력 발전소에 문제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되는 태양열 발전소가 상당수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 휴식시간 무얼할까]

- 물론 일을 한다. 휴식 시간에는 또한재택 근무를 할 경우 조깅을 하고,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약국에 들르기도 한다.
- 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Bloomberg: Dollar Bearish Bets Climb to Record High Among Asset Managers****자산 운용사들의 달러 약세 베팅, 최고치**

- 미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연준의 16개월에 걸친 금리 인상 조치가 끝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달러 약세 베팅을 사상 최대치로 올리고 있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8개 통화 데이터에 따르면 연기금, 보험사,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 7월 18일까지 한 주 동안 달러 순매도 포지션을 18% 증가한 568,721계약으로 늘렸다.
- 미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인플레이션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Bloomberg: Chip CEOs Urge US to Study Impact of China Curbs and Take Pause****미 칩 CEO들 “정부는 중국 수출 통제 여파 검토해야”**

- 미국 최대 칩 제조업체 CEO들은 미 정부에 촉구했다. 칩의 대중 수출에 대한 제한 여파를 연구하고 칩 수출 제한을 일시 정지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 관련 기업체들인 Intel, Nvidia, Qualcomm 관계자들은 수출 통제가 미국 산업 리더십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월요일 워싱턴 회의에서 경고했다.
-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칩 제조업체들은 중국 수출 억제를 강요받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Why Businesses Can't Stop Asking for Tips****업체들, 팁 요청 계속하는 이유**

- 팁은 오랫동안 직원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고객에게 요청해 왔다. 이제는 식당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고용주들이 고객에게 팁을 요구하고 있다.
-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Scheherazade Rehman이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팁 의존도가 높다”며 “팁 요청은 통제 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팁을 처음 도입한 기업은 치열한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를 유지하며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팁을 받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소비자들은 매번 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근로자의 임금은 소비자가 아닌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What Elon Musk's AI Startup Means for Tesla's AI Ambitions Elon Musk의 AI 스타트업이 Tesla 에 주는 의미

- 테슬라의 많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무인 자동차 계획에 관심을 가져 왔다. 때문에 그들은 Elon의 AI 스타트업이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 Elon은 두 회사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테슬라의 가치를 키울것”이라고 덧붙였다.
- 테슬라와 xAI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테슬라는 완전 무인 자동차를 구현하기 위해 AI를 연구해 왔다. xAI는 고급 AI를 개발하여 초인적인 지능을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 엘런 머스트는 지난 5월 “테슬라는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완전 자율 주행 진전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훈련이다. 더 진보된 트레이닝 컴퓨팅이 있다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Spotify is hiking its prices Spotify 가격 인상하다

- Spotify는 가장 최근에 가격을 인상한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 이번주 월요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해 월 10.99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1불 더 추가된 금액이다.
- 가족 및 학생 요금제와 같은 다른 등급도 월 1불 인상 된다. 이번 가격 인상은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 가입자에게 적용 된다.
- 스트리밍 서비스는 더 이상 가입자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가입자를 잃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 Peacock, Netflix, Paramount+, Disney+, Max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AMC Theaters scraps plans to charge more for good seats AMC “좌석 차등 요금 부과 취소”

- AMC는 저번주 목요일 “올해 초 시작한 단계별 좌석 가격 책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좋은 좌석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지난 2월 AMC는 극장 티켓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가격을 제공할 것이며,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 가격에 비해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AMC는 새로운 유형의 좌석을 맨 앞 줄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전국 극장에서 리클라이닝(recline) 좌석을 맨 앞 줄에 배치해 테스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 경제 연착륙의 핵심 열쇠... "연준의 3%대 인플레이 용인 여부"

서머스 "목표치 3% 상향 수정은 잘못된 생각" 신중론도
연준, 26일 기준금리 0.25%p 인상 유력...사실상 마지막 인상 관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연준이 3%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용인할지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목표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둔화시키는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면서 이같이 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금리 상단을 5.5%로 만들 가능성을 99.8%로 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